

“늦은 저녁에도 안심하고 아이 맡기세요” 정은경 장관, 야간 연장돌봄 운영 현장 점검

- 추경 청년뉴딜 사업 통해 전국 연장돌봄센터 추가 인력배치 예정 -
- 종사자 격려 및 이용 아동 부모 직접 만나 정책 체감도 의견청취 -

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 27일(월) 오후 8시 50분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야간 연장돌봄 센터를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**현장의견을 청취**했다.

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해 6월과 7월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**범부처 대책의 일환**으로('25.9.3., 국무총리 주재 현안점검회의) 공적 아동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다. 경조사, 맞벌이 부부 야근, 저녁시간 생업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전국 5,500여 개 마을돌봄시설 중 **343개소를 사업 참여기관**으로 선정하고, 2026년 1월 5일 운영을 개시했다.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한 적이 없어도 **이용 2시간 전까지만** 신청하면 밤 10시 또는 자정까지 아이(6~12세, 초등학생)를 맡길 수 있다.

야간 연장돌봄은 누구나 국번 없이 **1522-1318**을 누르면, 이용자 거주 지역에 소재한 상담센터(17개 지역아동센터 시도 지원단)로 자동 연결되며, 인근의 이용 가능한 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다.

정은경 장관은 야간근무 종사자를 격려하는 한편, 4월 확정된 추가경정 예산의 청년뉴딜 사업을 통해 야간 연장돌봄 센터 추가 인력(343명)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.

아울러 야간 연장돌봄을 위해 휴식·편의물품(침구류 구입), 시설 환경 개선비 등 지원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KB금융 측에 감사를 표하며, 수행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에게도 사업 안정화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.

정은경 장관은 이용 아동의 부모를 직접 만나 야간 연장돌봄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확인하고, “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편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,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<붙임> 1. 현장방문 개요

2. 아동 야간 연장돌봄 사업 안내

담당 부서	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보호자립과	책임자	과 장	장영진	(044-202-3430)
		담당자	사무관	임태근	(044-202-3443)



□ 개요

- (추진 배경) 야간 연장돌봄사업 안정적 정착 점검(343개소, '26.1월 실시) 및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장의견 청취·격려
- (일시) '26. 4.27.(월) 20:50~21:30(40분)
- (장소) 지역아동센터 나눔공부방*
*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20길 16(대흥동, 격암빌딩 2층)

□ 주요 참석자

- (복지부) 장관, 인구아동정책관 등
- (KB금융그룹) ESG본부장 전무 및 담당팀장
- (지방자치단체) 서울특별시 담당팀장, 마포구 가족정책과장 등
- (아동권리보장원) 부원장 및 담당부장
- (지역아동센터) 센터장 및 센터이용 부모, 생활복지사 등

□ 세부 일정

시 간	주요 내용	비 고
20:50 ~ 20:55 (5')	○ 센터 도착 및 이동	
20:55 ~ 21:25 (30')	○ 기관 운영현황 설명 (센터장) ○ 현장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 ○ 마무리 발언 (복지부)	회의실
21:25 ~ 21:30 (5')	○ 현장 라운딩 및 행사 마무리	


보건복지부

아동권리보장원

 **1522-1318**

야간 연장돌봄 사업

2026 신규 돌봄사업



갑작스러운 야근이나 긴급한 상황이 생긴 부모님을 위해 6~12세 아동을 대상으로
밤늦게까지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주는 우리 동네 긴급 SOS 돌봄 서비스

이용 대상  6~12세 아동 누구나 - 갑작스러운 야근, 예고 없는 출장, 질병 등 아이를 맡길 보호자가 없는 상황	이용 시간  - 평일(월~금) - 오후 6시~ 밤 10시 또는 12시 (센터별 상이)
이용 요금  1회 5천원 이내 (센터별 상이)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이용료 무료	신청 방법  - 지역 시도지원단 또는 해당 센터 - 이용시간 기준 최소 2시간전까지 신청 (당일 21시 50분 신청 마감)

이용 전 꼭 확인하세요!


- 귀가는 반드시 보호자(또는 사전 등록자)에게만 인계
- 등원하여 귀가하는 시간까지 포함된 안전보험 자동 가입(최대 5천만원 보상)
- 연락없이 미이용(No-Show)시 이용 제한 패널티 부과
 - 노쇼(No-Show)는 다른 아이의 기회를 놓치는 일임. 이용이 어려우면 꼭 연락 바람



돌봄시설 찾기

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(www.ncrc.or.kr) ▶ 사업소개
▶ 아동 성장돌봄 ▶ 야간 연장돌봄 사업 ▶ 돌봄시설 찾기

대표번호: 1522-1318



